

國語句讀點文法 研究序說

張 素 媛*

1. 句讀點의 概念

1.1.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크게 둘로 나누면 그 하나는 입을 통해 표현되는 口語이고 다른 하나는 문자에 의해 표현되는 文語이다. 문자를 사용하여 필기나 인쇄를 할 때, 즉 文語를 사용하여 의사를 전달하려 하는 경우 우리는 의미의 이해를 쉽게 하거나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띄어쓰기를 하거나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의 여러 가지 문장부호를 사용한다. 반면 口語를 사용하여 의사표시를 할 경우 우리는 의미를 강조하거나 혹은 변화시킬 목적으로 얼굴표정이나 몸짓, 休止 등의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도, 강세, 고저 등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앞의 경우처럼 文語에서 일정한 문장부호를 사용하는 용법만을 punctuation, 곧 句讀點 혹은 句讀法이라고 불러왔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표기에 나타나는 외부의 모습에만 집착하여 띄어쓰기나 문장부호만을 흔히 句讀點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포괄적인 개념의 句讀點에는 口語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발화양식으로부터 관습화된 부차적인 수단들¹⁾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언어학은 엄격한 의미에서 口語나 文語와 더불어 몸짓, 얼굴 표정 등의 모든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를 그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기

* 國語國文學科 4年

1) 이에 는 속도, 강세, 고저, 휴지, 리듬, 호흡 등의 어조(intonation)에 해당 하는 요소들이 포함된다.

때문이다.

1.2. 이러한 句讀點의 개념은 ‘句讀點文法’²⁾이라는 문장문법을 발전 시킨 Ballmer(1975)에서 비롯된다. 그에 따르면 여러 句讀點들은 특이한 형태소로서 다른 모든 언어적인 실체들과 마찬가지로 음소·자소론적 측면과 형태·통사론적 측면 그리고 의미·화용론적 측면을 모두 지닌 어엿한 ‘언어적 실체(linguistic entity)’이다. 또한 그것은 하나의 형태소나 단어에는 국한될 수 없는 문법적인 성질을 지니므로 각 언어에서 ‘일차적’ 혹은 ‘이차적 형태소’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전까지의 句讀點은 대개 각 언어에서 종속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언어적 실체’로서 句讀點을 파악하여 그 본질로서 형태소, 단어, 문장, 텍스트, 담화 등과 동등한 특수한 형태소이거나 혹은 특수한 단어의 한 종류라고 이해하기로 한다. 그리고 句讀點은 문장을 만들기 위해 앞에 나온 단어들을 결합하거나 문맥을 이루기 위해 앞의 문장들을 종합하는 일을 한다고 본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의미적인 부호인 句讀點(punctuation sign)의 개념과 단지 자소적인 실체인 句讀點 表示符號(punctuation mark)의 개념이 구별되어야 한다. 前者는 음성학적 혹은 음운론적으로 강세, 고저, 휴지, 호흡, 리듬 등의 어조에 해당하는, 기저에 깔린 실체이고 의미론적으로는 하나의 명제를 완성시키는 기저가 되며 화용론적으로는 언표내적인 영향력의 기저가 되는 존재이다. 또한 그것은 통사적인 의미도 지녀서 불완전하나마 문장의 형태를 결정짓는 객관적인 통사구조를 만든다. 따라서 句讀點의 의 주된 기능은 음성학적으로는 어조를 반영하고 자소론적으로는 종지점의 기능을 하며 통사론적으로는 구성요소와 문장구조를 연결시켜서 의사전달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를 알게 해준다.

2) Sprachrekonstruktionssysteme(1975) Kronberg/Ts. : Scriptor에서 Ballmer 자신이 ‘Punctuation grammar’라고 명명하였다.

句讀點은 이렇게 명백한 하나의 언어표현이므로 언어학의 정당한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언어학의 순수한 대상을 더 좁혀서 口語에만 한정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어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언어학의 대상인 것이다.

1.3. 이제 우리는 句讀點이 나타나는 국어의 문헌자료들을 살펴보는 일에서부터 출발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句讀點이 현대언어학적인 개념으로 국어에서 언제부터 쓰이게 되었는가를 밝히고 그것의 쓰임이 어떠한 경위를 거쳐서 오늘날처럼 확대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句讀點은 현대국어에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여 이를 음운론, 의미론 그리고 통사론의 측면에서 검토해 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어의 句讀點이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며 따라서 句讀點의 올바른 용법을 정립하려는 시도에 접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종래의 句讀點 남용 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와 반대되는 경우로 국어에는 句讀點이 불필요하다는 몇몇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국어에서의 句讀點

2.1. 기원과 확대과정

국어에 사용된 句讀點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한문 점찍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의미상 끊어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혹은 읽을 때의 편이를 위하여 문장의 중간에 몇 종류의 점을 찍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西歐의 句讀點 체계가 일본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이다.

前者에 관한 설명은 박지홍(1979:62)에 나타나 있다. 그에 따르면 중국 원나라 때의 韻書인 「韻會學要」(1297)에 이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말

이 끊어지는 곳에서는 글자의 곁에 句點을 찍고 말은 끊어지지 않지만 옮겨질 때의 편이를 위하여 문장의 중간을 나누는 讀點은 글자의 사이에 찍는다고 했다. 이러한 설명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해져서 여러 문헌에서 이에 관한 언급이 나타난다. 실지로 이 점찍기가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訓民正音」(1446)이다. 이에는 고릿점(◦)이 보이는데 그 용법은 중국의 句點, 讀點의 그것과 일치한다.³⁾ 이러한 쓰임은 그 이후의 다른 문헌에도 계속 나타나며 한글 문헌인 「龍飛御天歌」(1447)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의사전달의 편이를 위하여 문장 가운데에 점을 찍는 현상은 그 후 점차 확대되어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출간된 문헌에서는 거의 모든 어절의 뒤마다 이러한 점이 보이⁴⁾ 그 점들의 종류도 다양하다.

그런데 이 무렵 마침 일본을 통하여 西歐의 句讀點 체계가 도입되어 그 세력을 넓혀가자 그전부터 있던 중국식 句讀點은 그에 상응하는 西歐의 띄어쓰기 형식으로 대체되었다. 일본에서 전래된 西歐의 句讀點에 관해서는 金秉喆(1978)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句讀點은 문필가들에 의해 처음으로 西歐에서 도입되었으며 이어서 교과서 편찬자들의 힘을 얻어 널리 보급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가장 먼저 句讀點이 사용되어 그것에 의해서 국민들 사이에 확대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句讀點이 최초로 쓰인 국어 교과서인 「新訂尋常小學」(1896)은 일본 문부성 편집국에서 간행한 소학교 교과서인 「尋常小學讀本」(1887)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번역하면서 그 句讀點마저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1896년에는 우리나라에 이미 句讀點이 도입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句讀點은 일본 교과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移入된 西歐式의 句讀點이라 하겠다.

3) 고릿점의 자리에 언해본(1459)의 한글토를 대입시키면 가장자리의 고릿점은 모두 ‘-하나니라’와 같이 문장이 끝나는 형식으로 옮겨졌으며 가운데 고릿점도 대부분 ‘-하면’이나 혹은 ‘-란’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4) 그 대표적인 예가 리봉운著 「국문경리」(1897)이다.

개화기에 도입된 西歐의 句讀點은 그 후 점차 국어에 토착화되었다. 이는 20세기에 간행된 서적들을 검토해 보면 명백해지는데 20세기 초의 新小説과 翻案小説, 翻譯小説에는 쉼표뿐만 아니라 물음표, 인용부호, 말줄임표 등의 여러 句讀點들이 보인다.⁵⁾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는 句讀點들은 차츰 현대로 오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띠게 되었다. 곧 감정표현이 제약되고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내용을 담은 글에서는 句讀點의 사용이 매우 심하게 제약을 받는 반면 감정의 노출이 심한 글이나 口語를 인용하는 글에서는 어조가 특히 강조되므로 句讀點의 사용이 뚜렷한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고 따라서 그 쓰임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前者의 예로는 신문울 들 수 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종지문임을 나타내는 형식적인 마침표를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런 句讀點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의미의 전달이 자연스럽다. 또한 현대국어에서 句讀點이 남용되는 현상을 들 수 있는데 이는 西歐의 문장을 접한 초기의 사람들이 句讀點이 사용된 문장을 그대로 직역하면서 그 속의 句讀點까지 분별없이 옮겨왔거나 혹은 복잡한 구성의 문장을 번역하면서 생기는 의미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句讀點을 지나치게 찍게 된 사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2. 국어문법서에 나타나는 句讀點의 규정

국어 句讀點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는 상반된 두 방향으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Ridel(1881)에 의해 대표되는 견해로 국어에서는 문장의 경계가 형태론적으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句讀點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西歐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句讀點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좋다는 李常春(1925), 최현배(1937) 그리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등의 견해이다.

前者의 입장에 따르면 국어의 종지문과 접속문은 동사의 굴절에 의존

5) 「치약산」(李人龍), 「鬼의 聲」(李人龍), 「銀世界」(李人龍), 「벌세계」(陸定洙)등을 들 수 있다.

하는데 이 두 종류의 문장은 형태·통사론적인 차이가 있어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등으로 대표되는 종지문은 각자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반면 영어의 comma文에 해당하는 접속문은 항상 종지문과 적절히 결합되어야만 완결될 수 있다. 국어의 문법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기술한 대표적인 사람은 Ridel(1881:176)이다. 그는 한국어에는 句讀點을 표시하기 위한 특별한 부호가 없으며 그런 부호들은 특수한 종지형으로 대체되어지는데 그 방식은 문장의 끝이나 중간에 적절한 동사형태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따라서 국어에서의 句讀點은 ‘말해지는 句讀點(une ponctuation parlée)’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열한 가지의 句讀點을 제시하고 각각 이들에 해당하는 국어의 어미들을 나열했다. 또한 그는 국어의 표기법에는 띄어쓰기가 없고 모든 음절들은 붙여서 쓰여진다고 한 후 이렇게 하면 단어의 시작을 구별하기가 어렵고 한국어를 배우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다른 경우로 李常春(1925:158)은 ‘文의 符號’는 ‘글을 짜르 때에 쓰는 여러 가지 보람’이라고 한 후 斜點(·)부터 斜術(/)에 이르기까지 열세 종류의 句讀點을 제시하고 설명한 후 각각의 예문을 들고 있다. 이 체계는 논리적이며 잘 정돈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은 국어 연결어미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西歐의 체계를 그대로 국어에 옮겨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최현배(1937, 1971:870)에서는 句讀點 사용법이 ‘월점치기’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져 있는데 그는 이것을 ‘월과 월과를 가르며, 또는 월의 조각을 서로 갈라서, 글의 뜻을 알아 보기에 쉽도록 하려고, 여러 가지의 점(월점, 文章點, 句讀點)을 치는 것’이라 정의했다. 그는 이러한 句讀點의 사용은 동양에서는 별로 하지 않던 일이며 서양의 글 적는 법에서 온 것이라고 하면서 만일 모두 한 글만을 쓰게 된다면 이러한 句讀點을 사용하지 않고는 그 글의 기능을 다할 수 없으므로 완전한 글에는 반드시 완전한 월점치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 체계와 용법은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영

어의 것을 그대로 채택하여 쓸 것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렇게 句讀點의 체계와 용법을 영어와 같이 하자는 그의 견해는 국어 문장에서 句讀點 남용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두 권의 문법서 이외에 句讀點의 용법을 규정한 것으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61)⁶⁾을 들 수 있다. 이는 1933년 국한문 혼용으로 처음 출간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정을 겪었다. 그 종류도 열 여섯 가지에서 시작하여 서른 아홉 가지에 이르도록 커다란 변화를 겪었는데 최근 (1958:55)에는 서른 아홉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이 체계 역시 西歐式 句讀點의 것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국어 연결어미의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 이 통일안의 내용은 최현배(1937)의 句讀點 체계보다 그 종류가 더 세분되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것이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어 句讀點의 체계는 아직까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최현배 등의 체계를 택하여 그들의 표기법에 적용하고 있거나 혹은 지금까지도 통일성이 없이 각자 편리한 대로 句讀點을 사용하고 있다. 국어의 句讀點이 西歐 句讀點의 체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그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여 사용한다면 句讀點의 기능은 국어에 존재하는 동사활용 등의 고유한 특성과 중복되어 句讀點의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남용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국어의 연결어미를 과신하여 句讀點 체계를 완전히 일소하였을 때 그 문장이 음운적, 통사적, 의미적으로 불완전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국어의 句讀點은 새로운 체계와 통일성 있는 원리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6) 이는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조선어 철자법 통일안」으로 간행한 것을 시초로 하여 1937년의 고친판(수정 5판)에는 17종의 句讀點에 관한 설명을, 그리고 1940년의 새판(개정 10판)에는 39종의 句讀點 용법을 담고 있다. 그 후 1946년 한글학회에서 일부 개정을 하였을 때는 句讀點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1948년에는 한글판으로, 1958년에는 용어 수정판으로 39종류의 용법을 담고 간행되었다.

2.3. 현대국어에서의 句讀點

句讀點은 현대언어학에서 하나의 어엿한 언어적 실체로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句讀點이 현대국어에서도 과연 언어적 실체로서 음운론적 측면과 의미론적 측면 그리고 통사론적 측면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의 형태소나 단어에 국한시킬 수 없는 문법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2.3.1. 음운론적 측면

국어에는 연결어미가 존재하므로 句讀點의 중요성이 인구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어에서도 句讀點이 음운론적인 차이를 유발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국어 문장에 쓰인 句讀點의 가장 대표적인 음운론적 기능은 강세와 고저, 억양 등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이다.

- (1a) 학교에 가.
- (1b) 학교에 가 ?
- (1c) 학교에 가 !

위의 세 문장들은 같은 단어의 나열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으로 파악된다. 그 이유는 각 문장에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라는 각기 다른 세 종류의 句讀點들이 사용되어 그 고저와 억양을 변화시키기 때문인데 이는 더 나아가 의미의 차이도 가져온다.

- (2a) 나는 무엇인가를 말해야 한다.
- (2b) 그것의 정체는 무엇인가 ?
- (3a) 집안은 평안하신지 궁금하구나.
- (3b) 아버님은 요즘 평안하신지 ?
- (4a) 그가 정말 갔다 보고 오너라.
- (4b) 이 아이가 집에 갔다 ?
- (5a) 그가 돌아오니 모두 기뻐한다.
- (5b) 그는 언제 돌아오니 ?

위의 예문들은 句讀點의 유무가 외전상으로는 동일한 어구들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 -다니까, -구나’ 등과 같은 뚜렷한 종결어미가 아닌 다른 불분명한 형태로 문장 속에 들어 있는 어구들에서 종종 발견되는데 (2a)에서 (5b)까지의 문장들의 ‘-ㄴ가, -ㄴ지, -나, -니’ 등의 어미들은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구별이 점차 모호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句讀點은 문맥에 대한 事前의 지식이 없는 독자에게 음운론적으로 어조의 차이를 느끼게 해준다.

(6a) 그가 돌아오니 눈이 내리는구나.

(6b) 그가 돌아오니? 눈이 내리는구나.

위의 두 예문에서 (6a)는 그가 돌아온다는 사실과 눈이 내리는 사실을 관련짓고 기술되는 반면 (6b)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사건이 기술되고 있다. 이렇게 문맥에 대한 事前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句讀點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3.2. 의미론적 측면

印歐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어의 句讀點은 어떤 단어나 구의 수식 범위를 지정하여 준다.

(7a)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보라.

(7b)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보라.

(7a)는 대한민국이 위대하다는 뜻임에 반해서 (7b)의 경우는 쉽표가 있으므로 ‘위대한’의 수식대상은 ‘영웅’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용부호는 의미해석을 단어나 문장 혹은 단락의 범위에 제한시킨다.

(8a) *⁷⁾나무는 두 글자이다.

(8b) ‘나무’는 두 글자이다.

- (8c) 나무라는 단어는 두 글자이다.
 (8d) '나무' 라는 단어는 두 글자이다.
 (8e) ?⁷⁾ '나무라는 단어'는 두 글자이다.

위의 예문들을 살펴보면 '나무' 라는 단어는 우선 그 정의로서 '식물이다' 와 같은 내용과 연관된다. 따라서 (8a)를 음성으로 들었을 경우에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진다. 반면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8b)처럼 표시했을 때는 그 어색함이 사라지고 (8c)나 (8d)는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8e)는 인용부호가 그 해석범위를 '나무라는 단어'에 한정시켜 주므로 의미가 통하지 않는 문장이 되는 것이다.

또한 句讀點은 의미론적으로 중요성의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 (9a) 나는 천재이니까(?) 모르는 것이 없다.
 (9b) 그는 나를 '매우' 좋아한다.

위의 예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괄호 속의 의문부호는 그 사실성의 여부를 결정해 주고 (9a), 인용부호는 중요성을 더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9b).

2.3.3. 통사론적 측면

국어에는 句讀點이 꼭 필요하여 없어서는 안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연결어미가 존재하기 때문에 혹은 국어의 다른 특성들 때문에 句讀點의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句讀點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西歐 句讀點의 체계와 용법을 좇아 남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심표의 경우가 가장 극심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여러 종류의 句讀點 가운데 특히 심표에 주목하여 연결어미가 존재하므로 통사론적으로 심표가 불필요한 경우의 용법은 제외시키고 필수적으로 심표가 요구되는 용법만을 규정해 보고자 한다.

7) *표는 의미가 약간 어색하다는 것이다.
 8) ?표는 의미론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뜻이다.

첫째, 독립어 뒤 그리고 조사가 생략된 문장수식 부사어인 경우에는 그 뒤에 쉼표를 찍는다.

- (10a) 예, 지금 갑니다.
 (10b) 영수야, 이리 오너라.
 (10c) 아, 우리의 조국이구나.

위의 세 문장들은 각각 대답, 부르는 말, 감탄의 내용을 담은 독립어가 사용된 것이므로 쉼표가 필요하다.

- (11a) 첫째, 나는 돈이 필요하다.
 (11b) 첫째로 나는 책을 사겠다.

위의 두 문장에 쓰인 부사어들은 그 의미가 동일하다. 그러나 (11a)는 조사가 생략된 문장수식 부사어가 文頭에서 사용된 것으로 이때는 쉼표가 필요하지만 (11b)처럼 문장수식 부사어가 조사에 의해 연결되어 文頭에서 사용되었을 때는 쉼표가 불필요하다.

둘째, 같은 계열의 어구가 조사없이 연결되거나 짝을 지어 나열될 때는 쉼표를 찍는다.

- (12a) 영이, 순이, 숙희가 모두 왔다.
 (12b) 영이와 순이와 숙희가 모두 왔다.

두 예문 중 (12a)는 같은 계열의 어구가 조사없이 나열된 경우이므로 쉼표가 필요하지만 (12b)와 같이 나열되는 어구들이 조사에 의해 연결될 때는 쉼표를 찍지 않는다.

- (13a)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13b) 닭과 지네와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같은 계열의 어구가 짝을 지었음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13a)처럼 쉼표를 찍어 구별하여야 한다. (13b)와 같은 형식으로는 짝을 지었음을 나타낼

수 없다.

세째, 도치에 의해 주제가 화시켜 강조할 때⁹⁾, 동일어나 같은 의미의 단어가 반복될 때는 심표를 찍는다.

(14a) 기울었다, 하얀 조각달조차.

(14b)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위의 두 예문은 각각 ‘기울었다’는 사실과 ‘간다’는 사건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심표를 찍어야 한다.

(15a) 빵, 빵만이 인생의 전부인가?

(15a) 빵이, 빵만이 인생의 전부인가?

(16a) 그, 철수는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16b) 그는, 철수는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15a)와 (15b)의 두 문장은 동일단어가 반복되는 경우로서 조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에는 심표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16a)와 (16b)의 두 문장은 동일단어가 아니면서 같은 의미를 띤 단어가 반복될 경우라도 역시 조사의 존재유무와 무관하게 심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째, 문접속의 경우 서술어가 존재하는 문장은 심표가 필요치 않으나 서술어가 생략되고 목적어나 부사어로 접속되는 경우¹⁰⁾에는 조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심표가 항상 필요하다.

(17a) 산은 높고 물은 맑다.

(17b) 봄이 오니 꽃이 핀다.

위의 두 문장은 현대국어에서 심표가 가장 남용되기 쉬운 경우의 예로 이들은 서술어에 의해 접속되고 있으므로 심표를 찍지 않는 것이 국어의 특성을 살리는 태도이다.

9) 이는 topicalization 현상을 말한다.

10) 이는 gapping 현상을 말한다.

- (18a) 형은 딸기, 나는 복숭아를 먹었다.
 (18b) 형은 딸기들, 나는 복숭아를 먹었다.
 (19a) 그는 극장, 나는 집으로 갔다.
 (19b) 그는 극장으로, 나는 집으로 갔다.

두 쌍의 예문들 가운데 (18a), (18b)는 목적어로 접속된 경우이고 (19a), (19b)는 부사어로 접속된 경우인데 이때에는 조사의 연결여부가 쉼표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섯째, 문장에서 수식어의 바로 뒤에 피수식어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 수식어 뒤에 오는 단어가 용언으로 시작될 때는 쉼표를 찍지 않아도 의미파악에 지장이 없으나 그렇지 않고 수식어 뒤의 단어가 체언으로 시작될 때는 쉼표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 (20a) 말은 그 민족과 생사성쇠를 같이하는 품을 수 없는 절대의 관계를 가진 것이다.
 (20b) 증복을 지난지 겨우 사흘째 되는 무척 더운 날이다.

위의 두 예문은 수식어 뒤에 용언이 이어지는 문장들로서 이 경우는 쉼표의 결여가 의미에 혼동을 가져오지 못한다.

- (21a) 크고 넓고 화려한, 개선문으로 통하는 상젤리제거리는 언제 보아도 아름답다.
 (21b)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너희반 아이들의 행동을 돌이켜보아라.
 (21c) 이것이 내가 그리려고 하는, 세번째 대상의 얼굴이다.

위의 세 문장은 수식어 뒤에 체언어구가 이어지는 경우인데 이 때에는 쉼표가 반드시 있어야만 의미파악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지금까지 句讀點은 국어의 경우에도 언어학적 실체로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음운론, 의미론, 통사론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국어에서 특히 남용되는 쉼표의 용법을 통사론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이

것으로 침표의 용법이 모두 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른 句讀點들의 경우도 역시 새로운 체계와 용법의 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3. 결 론

지금까지 국어학은 물론, 일반언어학에서도 언어학의 대상으로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句讀點을 Ballmer(1975)에 근거하여 그 개념을 정립시킴으로써 句讀點이 일차적 혹은 이차적 형태소의 가치를 띤 하나의 언어적 실체라는 사실을 밝혀보았다. 논의한 결과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句讀點은 지금까지 각 언어사용에서 단지 종속적인 역할을 할 뿐이라고 생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엿한 언어적 실체이며 형태소, 단어, 문장, 이야기 등과 동등한 자격을 지닌, 특수한 단어의 한 종류이다.

2. 句讀點은 음성학적 혹은 음운론적으로는 강세, 고저, 휴지, 호흡, 리듬 등의 어조에 해당하며 의미론적으로는 하나의 명제를 완성시키고 통사론적으로는 구성성분과 문장구조를 연결시킨다.

3. 국어에서 사용되어온 句讀點은 西歐의 영향을 받은 것과 한문 점찍기의 영향을 받은 것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후자는 20세기에 들어와서 西歐 句讀點의 한 형태인 띄어쓰기로 교체되었고 전자가 현재까지 전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4. 국어의 句讀點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그 중 하나는 Ridet(1881)에 의해 대표되는 것으로 국어의 종지문과 접속문은 그 동사의 활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문장의 경계가 형태론적으로 표시되고 따라서 句讀點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西歐의 句讀點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로 李常春(1925), 최현배(1937)

그리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태도가 그러하다.

5. 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句讀點 가운데 그 남용이 가장 심한 것은 특히 省略의 경우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省略의 용법을 다음과 같이 다섯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 (i) 독립어 뒤, 조사가 생략된 문장수식 부사어의 뒤에는 省略를 적는다.
- (ii) 같은 계열의 어구가 조사없이 연결되거나 짝을 지어 나열될 때는 省略를 적는다.
- (iii) 도치에 의해 주체화시켜 강조할 때, 동일어나 같은 의미의 단어가 반복될 때는 省略를 적는다.
- (iv) 문접속의 경우 서술어가 생략되고 목적어나 부사어로 접속될 때는 조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省略를 적는다.
- (v) 수식어의 바로 뒤에 피수식이 대신 다른 체언어구가 먼저 올 때는 수식어를 省略로 구별시킨다.

그러나 이 省略의 용법뿐만 아니라 국어에서 사용되는 다른 句讀點들도 모두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으며 그 체계와 용법은 불완전하므로 새로운 체계와 용법의 규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參 考 文 獻

- 金秉喆(1978), “韓國句讀點起源考”, 韓國學報 9.
- 리의도(1983), “띄어쓰기 방법의 변해 온 발자취”, 한글 182.
- 朴炳采(1976), 「譯解訓民正音」, 博英社.
- 박지홍(1979), “한문본 훈민정음의 번역에 대하여”, 한글 164.
- 李常春(1925), 「朝鮮語文法」, 崧南書館.
- 최현배(1937, 1977), 「우리말본」, 정음사.
- 한글학회(1982), 「한글 맞춤법 통일안, 처음판 및 고침판 모음」, 한글학회.
- Ballmer, T.T. (1975), “Punctu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

ley, mimeo.

Bloomfield, L. (1933), *Language*, Holt, Rinehart and Winston, N.Y.

Gale, J. S. (1894), *Korean Grammatical Forms*, Yokohama.

Quirk, Randolph et al. (1972),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Seminar press.

Ridel, F. (1881), *Grammaire Coréenne*, Yokohama.

Underwood, H.G. (1890),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Yokohama.

Abstract

Punctuation signs are special kinds of morphemes or words, and they are complete entities in the theory of Korean punctuation as well as in that of most western languages. The pragmatic framework that I assume here is based on Ballmer(1975), which concentrates on the development of 'punctuation grammar.'

Punctuation signs used in Korean were influenced by the theory of their western counterparts. There are two conspicuous counter-opinions on punctuation. While the affirmative attitude is represented by Lee, Sang-chun(1925), Choi, Hyon-bae(1937) and the KLRS*(1933), the negative one--There is no particular sign marking punctuation, so it can be replaced by special termination, instead.--is advocated by Ridel (1881).

At present time, however, there is a tendency to overuse punctuation marks in Korean sentences. It is mainly because Korean verb inflection has not been fully recognized. Therefore the Korean punctuation system should be rearranged in consideration of the peculiar character of Ko-

rean; in addition, the arrangement of its usage is urgently required, I think.

So I suggest the following usages of the comma in Korean sentences:

Commas are punctuated

(i) after the independents, after the sentence-modifying adverbs without particles.

(ii) after the same class of words are coordinated without particles, in case they go in couples.

(iii) after the topicalized phrases for the purpose of emphasis, after the same phrases or reduplicated synonyms.

(iv) after two sentences which are conjoined by objective or adverbial phrases without having particles.

(v) after a NP which is followed by a modifying phrase in place of a modified phrase.

* KLRS is Korean Language Research Society.